

동서양 미디어아트 융합...새롭게 창조된 미래 자연

미래가 된 산수: 미구엘 슈발리에, 이이남

내년 3월16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한국·프랑스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 과거·현재 감성 혼재하는 시공간 "기술 융합 통해 독창적 세계 체험"

지난 17일부터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가 된 산수: 미구엘 슈발리에, 이이남' 전시는 프랑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두 미디어 아티스트가 미래의 자연을 디지털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의 대표 디지털 예술 개척자로 불리는 미구엘 슈발리에 작가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예술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이남 작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자연과 기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고 미래 지향적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작품들로 전시의 테마를 구성했다. 특히 동서양의 고전 회화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미디어아트 작품들로 수놓은 전시 현장은 과거와 현재의 감성이 혼재하는 흥미로운 시공간을 제시한다.

미구엘 슈발리에에는 멕시코 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뉴미디어 작가다. 그는 현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 예술가로서 디지털 아트의 개척자로 일컫는다. 지난 1978년부터 40여년간 자연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시해 왔고 2D와 3D 기술을 사용해 유기적이고 추상적인 움직임을 작품에 구현해 왔다. 그는 인상주의에 기초한 빛을 활용해 자연과 기술의 관계,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와 정보 흐름 등을 관찰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이미지의 결합, 생성, 상호작용들을 압축된 방식으로 재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펼쳐내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메타 네이처 AI', '엑스트라-내추럴', '플라워 파워' 등 세계의 가상정원을 제시한다. 식물계와 디지털 우주 세계에서 상상한 정원이 가상 식물원을 연출하듯 관람객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재창조된 자연으로 안내받는다. '실제 자연과 인류가 창조한 기술적 자연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시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의 인공 낙원이 펼쳐진다.



이이남 작 '미래가 된 산수'.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이이남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된 현대적 메시지를 던진다. 미디어아트의 지평을 확장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는 고전 회화의 축적된 시간성을 동시대적 미디어아트 기술에 접목해 새롭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작가는 전통 산수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폭발하는 산수', '진동하는 산수', '미래가 된 산수' 등으로 새로운 차

원의 사의적(寫意的) 풍경을 펼친다.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는 관람객들에게 사라져 가는 산수의 형상 속에서 여백을 발견해 각자의 산수를 떠올리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두 작가가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창조한 미래의 자연과 산수화를 통해 독창적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연말과 새해를 맞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기술로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내년 3월16일까지 개최된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artmuseum.jeonnam.go.kr)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광주과학관,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캠프' 성료

국립광주과학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과학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3D펜으로 꾸미는 우리가족 크리스마스 트리' 체험과 '별빛천문대에서 만나는 12월의 밤하늘'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3D펜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어 가족의 의미를 과학으로 담아 표현했다. 밤에는 별빛천문대에서 12월에 만나볼 수 있는 겨울철의 1등성들을 관측하며 추억을 쌓았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앞서 지난 1월에 진행한 겨울방학 캠프를 시작으로 △우주탐사 과학캠프 △가족별밤캠프 △시정보영재캠프 △별난 낭만여행 등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을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화석을 직접 캐러 떠나는 자연탐사 캠프, 생명공학 분야 실험, 생명과학 캠프 등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캠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ACC, 미디어 파사드 작품 '밝아오는 새해 인사' 상영

내달 12일까지 예술극장 빅도어서 상영·콘텐츠 발굴과정 교육생 작품 연말 맞이 크리스마스 조명·조형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예술극장 빅도어에서 미디어 파사드 작품 '밝아오는 새해 인사'를 내년 1월12일까지 매일 오후 6-8시에 상영한다.

'밝아오는 새해 인사'는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더해 가로 34m, 세로 14m에 이르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선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도어에서 상영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ACC에서 올해 진행한 '콘텐츠 발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작품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ACC에서 1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에 대한 실무와 현장 경험을 익힌 후 연말에 직접 제작한 영상을 미디어 파사드로 공개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화면을 가득 채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온기를 전해주는 고양이, ACC를 가득 채운 예술가들의 모습 등이 이어진다. 미디어 파사드의 도화지로 사용되는 ACC 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예술극장 빅도어에서 미디어 파사드 작품 '밝아오는 새해 인사'를 다음달 1월12일까지 상영한다. ACC 제공

술극장 빅도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블랙 박스형 공연장인 극장1과 야외무대를 연결하는 카페 가능한 문으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조명과 조형물로 장식했다.

한편 'ACC 전문인-콘텐츠 발굴' 교육 과정은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 등 예비 전문가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융복합 및 가상 콘텐츠 창작과 기획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기본 이론 △장비·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실습 △ACC 창작현장 참여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140여명이 참여했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양은경 씨는 "올 한

해 ACC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실무 배움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작품에 '예술극장의 하루'라는 이야기도 담겼는데 수많은 예술가와 전문가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든 활기찬 전당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ACC에서 성장한 젊은 창작자, 기획자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ACC는 앞으로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29일까지 순천 일원서 개최 'Reflection' 주제로 진행

전남문화재단은 '2024 전남문화예술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순천 원도심 일원에서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

유회는 'Reflection'이라는 주제로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이 참여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성과전시회 △성과 평가회 △네트워크 파티 등으로 구성됐

다. 지난 19일 순천 장천노랑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올해 지원사업을 수행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성과평가회는 지난 19-20일 순천 장천노랑극장과 파랑새 창고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집중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

을 가졌다.

성과전시회는 29일까지 순천 기억공간 1945 등 3개소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지원사업 결과물과 성과가 소개되며 시각작품 및 공연 영상 전시,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그동안의 창작 과정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는 소중

한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예술인들이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고 서로의 창작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공유회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ncf.or.kr)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061-280-5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